

특화분야 중기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

탄소·식품·공예품 등 6개 분야 대상 맞춤형 지원 전주시, 특화분야 지원사업 성과창출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가 미래먹거리인 탄소와 식품, 공예품, 자동차부품 등 6개 분야를 특화한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성장을 돕기로 했다.

시는 3일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탄소기술교육센터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용현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전주시 출연기관장, 선정기업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특화분야 선정 및 지원사업 참여기관 성과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전주형 중소기업 특화분야 지원사업은 자생력이 부족한 전주지역 50인 이하 특화분야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화 전문 컨설팅 지원부터 홍보, 마케팅 지원에 이르기까지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참여기업 모집과

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 더데움과 ㈜테라엔지니어링 등 △탄소 △식품 △공예품 △자동차부품 △전기전자부품 △화장품 등 6개 특화분야의 40개 기업을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시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선정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비즈니스모델 발굴 컨설팅지원 △특화분야 제품 제작지원 △생산성 향상 지원 △시험평가·인증 지원 △디자인 개선 지원 △마케팅 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참여 기업 중 우수기업을 추가 선정해 △크라우드펀딩 투자 지원 △산업간 융합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선정된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뫼(이)업종 융합산업 포럼' 등도 연간 4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선정된 특화분야 중소기업들은 전주



3일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탄소기술교육센터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용현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전주시 출연기관장, 선정기업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형 중소기업 특화 분야 지원 사업 관련 업무 협약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전주시 제공)

를 대표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이 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전주문화재단, 한국전통

문화재단, 전주인재육성재단 등 전주시 6개 출연기관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화분야 중소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전주가 강점을 가진 탄소산업과 식품산업, 공

예품산업, 화장품산업 관련 기업을 키워내고 청년기업·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심의 전주형 경제정책을 추진해서 시민들을 위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최은영내과 최은영 원장 부부 예수병원 발전기금 후원

전북대병원 신경외과 최하영 교수, 최은영내과 최은영 원장 부부가 1,000만원의 예수병원 발전기금으로 후원을 했다.

최은영내과 최은영 원장은 3일 예수병원 병원장실을 방문해 김철승 병원장에게 예수병원 발전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최은영내과 원장은 "예수병원이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을 심는 선교병원으로 세워지길 기도드립니다. 지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의료봉사 기관인 예수병원의 김철승 병원장 취임을 축하한다."며, "예수병원의 더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김철승 병원장 병원장님의 수고와 헌신을 기도로 응원한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국 최초 빛물공동체 '거듭'

서학예술촌 빛물이용 시범마을 준공식

전주시 서학예술마을 주민들이 전국 최초로 버려지는 빛물을 재이용해 환경을 살리는 공동체로 거듭났다.

시는 지난 3일 서학예술촌 빛물정원(서학과출소)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도·시의원, 빛물이용 시범마을 주민협의회 회원, 서학동 자생단체·협의체 임원, 마을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모든 빛물이용시설에는 주민들이 보다 깨끗한 빛물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과기능이 탁월한 탄소여과장치가 설치돼 집수된

빛물의 수질개선은 물론 탄소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도 활기를 불어넣었다.

또한, 빛물이용 시범마을에는 과거 마당이 콘크리트포장 등 불투수면이 과도하게 분포됐던 일부 가옥에 투수성블록과 강자갈 포설 등 빛물침투시설이 설치돼 빛물의 외부유출을 최소화했다.

특히 시범마을 중심부에 위치한 서학과출소에는 주차장 여유 부지를 활용해 아담한 소형 빛물정원이 조성돼 빛물마을 홍보·교육과 견학혜택에 필요한 공간으로 제공된다.

이곳에는 내염·내열·내습수성

이 강한 13종의 초화류와 관목이 식재됐으며, 방문객이 빛물이용시설에 대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수동형 우물펌프(작푸름프)와 태양광 스마트플랜터 및 관할 데스크, 등자, 그늘막 등 휴게시설을 갖췄다.

시는 빛물이용 시범마을 조성이 완료된 만큼 서학예술마을 주민들이 빛물이용시설을 적극 활용해 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물 순환 체계 구축(회복)과 비점오염·인천국제공해경감단장(경무관)·서울경찰청 경무부장·서울경찰청 차장(치안감)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강석훈 기자

지역사회 주도 통합돌봄 모델 함께 찾는다

전주시·복지부·건보공단, 통합돌봄 비전 포럼 개최 오늘 팔복예술공장서 8개 지자체 참여 협의체 워크숍도

전주시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통합돌봄 대표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전주 한벽문화관에서 김양원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장재혁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이일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장, 선도사업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통합 돌봄'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지역주도의 통합돌봄 추진방향'과 '지자체의 선도사업 모델분석'을 주제로 한 발전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패널들의 토론에서는 △기준 자원의 체계적 정비와 다양한 돌봄서비스 구축 △민·관 협력 기반 마련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 △전문 자문단 운영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효과성 검토 △돌봄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사례관리 강화 등 전주시가 중점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통합돌봄 방향도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정든 집'에서 노후를 편안하게, 함께해서 행복한 전주형 등 네돌봄 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한 전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총 51억2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어르신들을 위한 주거·복지·보건·의료 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적으로는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중인 경증 어르신 중 건강상 퇴원이 가능하지만 정주여건 등을 이유로 본인의 집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어르신을 지원하는 모델 △재가어르신 중 고혈압과 당뇨를 포함한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장기요양등급판정 등급 외 어르신을 지원하는 모델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해야 하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각 상태에 있는 사각지대 어르신을 지원하는 모델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 △전주시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 등과 함께하는 어르신 건강지원 사업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플랫폼 사업 △어르신 응급돌봄 지원사업 △요양등급 판정 전 가사지원 확대 사업 등 21개의 선도사업과 11개의 복지부·타부처 계약사업 등 총 32개 사업이 추진된다.

한편, 시는 이날 비전 포럼에 이어 4일에는 팔복예술공장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8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최초의 협의체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하반기 뉴딜 공모 대비 유관기관 참여 행정협의회

전주시가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가 발굴을 위해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체계 구축에 나섰다.

시는 3일 현대대상 8층 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과 완산경찰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 공모 대비 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토교통부의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대비해 △태평2·다가지역 활성화계획(도시재생과 주관) △인후·반촌지역 활성화계획(건축과 주관) 등에 대한 실현가능성 등을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 활성화계획안은 완산구 태진로 15-14일원(12만6400㎡)와 완산구 반촌로 32 일원(91,165㎡)을 대상으로 △나후면 기초인프라 및 생활 SOC 정비 △노후건축물 정비방안 마련 △지역주민 참여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조용식 신임 전북경찰청장, 오늘 취임

'소통·참여 든든한 생활치안, 경찰의 다짐' 비전 제시할 듯

신임 전북경찰청장으로 내정된 조용식 치안감이 4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이날 1층 대강당에서 전북경찰청 각 지휘부와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식 신임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소통하고 참여하는 든든한 생활치안은 전북경찰의 다짐이자 약속"이라는 전북경찰의 비전을 제시한다.

특히, 평소 "서로 존중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때 만족스러운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한 만큼, 도민들에게 기여하는 업무 시스템 및

조직문화 정착 분야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전북도민을 내 부모와 가족 같이 생각하고 권한에 맞는 책임행진 및 창의적인 업무처리로 존중받는 시스템 정착 및 협력단체를 활용한 치안공동체와 '도민들로부터 공감 받는 정의로운 경찰이 되자'는 당부의 말이 취임사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전북을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 민생치안 행정을 정성껏 펼쳐나가겠다'는 의지 역시 포함되지 않았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경찰의 눈과 귀를 열어 도민이 시급히 원하고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 해결하는

등 모든 치안 행정을 주민 편에서 생각하고 주민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경찰상 구현을 모토로 삼아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밀그림 삼아 불만요인을 해소해 만족을 넘어 감동을 선사하는 최상의 치안서비스에 주력할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조용식 신임 전북경찰청장 내정자는 김제 봉남중학교와 군산제일고?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원광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수여받았으며 지난 1987년 7월 18일 경사 특례로 첫 발을 내딛었다.

전북청 경무과장·김제경찰서장·익산경찰서장·정부 서울청사 경비대장·수서경찰서장·서울청 인사교육과장·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경무관)·서울경찰청 경무부장·서울경찰청 차장(치안감)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강석훈 기자

직업교육훈련 수료와 동시에 현장취업

전북여성새일센터, 미니취업박람회 개최

전북여성새일하기센터(센터장 이운애)는 3일 직업교육훈련 수료와 동시에 수료생 현장취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미니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니취업박람회에는 웹콘텐츠 마스터 도내 유망기업 및 여성친화기업인 (주)유유컬즈, NV홀딩스(주), (주)준디자인과 코딩·드론지도사 채용을 위한 (주)큰사람아카데미, (주)두드림, 메이커팩토리 등 총 6개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직접 참여해 경력단절여성 채용에 나섰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여성가족부지원 직업교육훈련 웹콘텐츠마스터·코딩·드론지도사 양성과정 수료생 및 도내 구직희망여성을 대상으로 구인정보를 제공해, 전문 취업상담사와 1:1 구직상담 및 이력서 작성을 지원했다.

직업교육훈련 수료와 동시에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미니취업박람회는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사전참가신청을 하거나 행사 당일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가지고 현장에서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장은성 기자

현장에서 논스톱 면접이 가능한 직접 참여업체 채용관을 비롯, 구직 참가자를 대상으로 직무적성검사, 퍼스널 컬러 진단, 면접메이크업, 네일아트 등 현장소통을 강화 한 취업관련 부대행사가 무료로 진행되어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채용계시대를 통하여 도내 채용예정인 기업체 30여 곳 사업장의 고용형태와 근무시간, 임금 등 알찬 일자리 관련 정보가 제공되어 재취업체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구직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구직매칭의 장이 되었다.

전북새일센터는 당일 현장에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여성 구직자와 기업은 행사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소란피운 손님 상해치사 식당 주인 2심도 징역형

소란을 피운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식당 주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상해치사 혐의를 기소된 식당 주인 A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9시 42분께 전주 완산구 자신의 음식점에서 B모(57)씨를 의자로 내리치고 바닥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영업시간이 끝났는데도 들어가자 않은 채 소란을 피우자 화가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범행 이후 상당시간 방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강석훈 기자

첫마중길 5개 상가, 관광객에게 화장실 개방

전주시는 첫마중길 상생협의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가의 건물주와 임차인들이 첫마중길을 찾는 관광객들의 화장실 이용 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상가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첫마중길 자율적 개방화장실 운영에 참여한 5개 상가의 경우 모두

젠트리피케이션(동지내몰림) 예방을 위한 '함께-가게' 협약을 체결한 곳들로 법적 개방화장실 지정 조건에는 맞지 않으나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첫마중길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자율적으로 화장실을 개방하기로 한 것이다. /송효철 기자

진열된 서양란 휴친 60대 딸미

건물 앞에 진열된 서양란 화분을 휴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원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63)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9시 54분경 남원시내 모 건물 앞에 진열된 시가 5만원 상당의 서양란 화분을 휴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와 함께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강석훈 기자